

사망의 학문과 영생의 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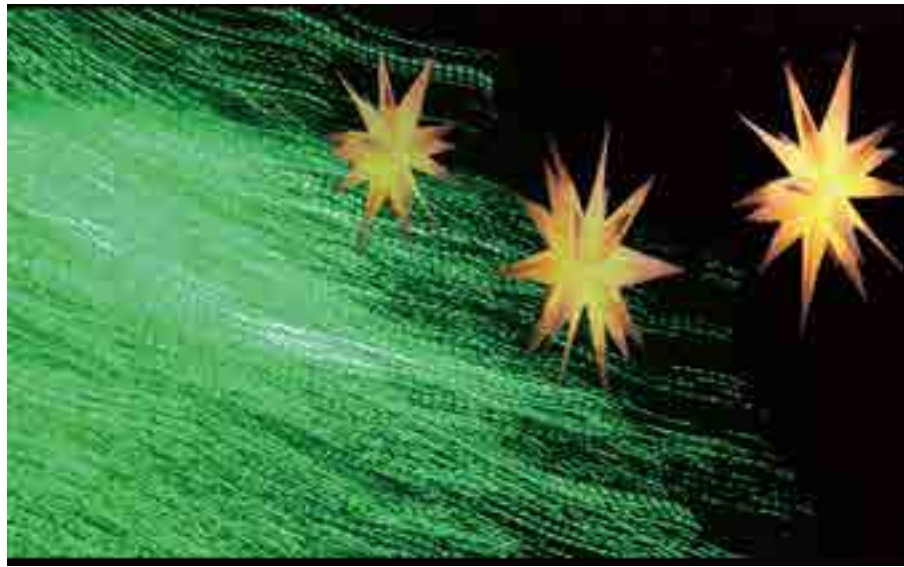
우리들의 인생은 스펀지가 없다. 이라도 한평생 저라도 한평생 오직 한 번뿐이다. 천국과 지옥도 현생에서만 갈 수 있을 뿐이니 -승리제단에서는 사망을 지옥이라고 말한다 -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 아니면 지옥 양단간의 하나뿐이다. 기왕지사 다홍치마라고 천국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적인 투쟁을 하여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입장권을 받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이므로 영생을 이루기 위한 학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생의 학문이 없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위인들도 사망의 학문만 설파했지 영생의 학문을 발표하지 못했다. 죽음을 전제로 한 학문, 즉 사망의 학문은 철름밭이 학문이지만 영생의 학문은 온전한 학문이요 완성의 학문이다.

사망의 학문과 영생의 학문

오늘날 인류의 참 구세주께서 출현하여 온전한 최고의 학문을 세계민방에 고하니 미개한 죄인들이 비과학적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람들은 과학 속에서 지고한 객관성을 찾아내고 그 인과율에 의해 세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과거의 세계에서 의미를 부여했던 전통이나 민간 신앙 종교나 형이상학은 비과학적인 것이 되어 점점 과학의 세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강상중 저, 『고민의 힘』 72 쪽) 강상중 교수의 말처럼 영생의 학문을 비과학적인 학문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 잘못이다. 과학이 아직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서 영생의 학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학문은 사망의 굴레 아래 놓여 있는 학문이므로 불완전한 학문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도 당시의 모든 경의 말씀이 불완전하다고 설파하였다. 그는 열반경 8권 85쪽에서 자신의 가르침은 온전한 글자가 아니라 반쪽 글자라고 말하고 있다. "是故半字於諸經書記論文章而爲根本(시고반자어제경서기논문장이위근본) 又半字義皆是煩惱言說之本(우반자의개시번뇌언설지본) 故名半(고명반) 滿字者乃是一切善法言說之根本也(만자자내시일체선법언설지근본야) 譬如世間爲惡之者名爲半人(비여세간위악지자명위반인) 修善之者名爲滿人(수선지자명위만인) 如是一切經書記論皆因半字而爲根本(여시일체경서기논개인반자이위근본) 열반경8권 85쪽 4-5 " 모든 경서에 문자를 기록하여 논한 것은 반쪽 글자의 뜻이 근본이 되었느니라. 또 반쪽



보광 18주년을 맞아 구세주의 화생과 인류애를 목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자의 뜻은 다 이것이 번뇌의 근본을 말한 것이어서 반쪽 글자라 말한 것이고, 완전한 글자는 선한 법을 말하는 근본인 것이다. 마치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이를 반쪽 사람이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를 완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경서가 다 반쪽 글자로 근본을 삼은 것이다." 여기서 반쪽 글자로서의 글자를 구성할 수 없으니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된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경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리라(고전 13:9-10)" 이 말씀은 성경말씀이 부분적인 것, 즉 반쪽 글자였다는 것이고,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온다는 뜻이다. 온전한 것은 사망을 이긴 완성의 영생의 학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불생불멸의 학문을 설하시는 정도령

한민족은 위대한 천손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민족의 국조(國祖) 단군왕검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천왕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천손민족인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민족 고유의 경전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수백년 간 전해져 내려온 위대한 예언서인 격암유록이다. 격암유록은 지금까지 예언의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경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노트르다 다무스를 능가하는 위대한 예언자 남사교 선생은 신인(神人)으로부터 전수 받은 예언의 글을 후세에 남겼는데 그 골자는 한민족의 구세진인 정도령의 출현에 관한 내용이다.

남사교 선생은 공을도가에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오직 공을(정도령)로서만 서로 통할 수 있다고 했다. "東西多教來(동서다교내합)하소 弓乙外(궁

을외)는 不通(불통)일세 어서오소 避難處(피난처)로 不老不死仙境(불로불사선경) 일세(공을도가)" 여기서 공을이란 정도령을 말하므로 정도령의 말씀 또한 공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정도령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학문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영생의 학문을 선포하는 주인공

정도령은 성경상 말세에 출현하는 이긴자 구세주이며, 불경상 말법시대에 출현하는 미륵불이다.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밝은 별이라는 뜻의 조희성님의 이름 밝을 희자, 별 성자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內示經)에 明星出時得佛道(명성출시득불도),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미륵불이 출현할 때 불도를 얻게 된다. 미륵하성경에 世尊曰我差天星次第下生(세존왈 아차천성차제하생) 一切眷屬皆作天人(일체眷속계작천인) 세존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음에 하늘의 별로 내려오리라. 그리하여 일체 권속이 다 하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처럼 조희성님의 이름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격암유록 초장(初章)에는 欲識養生保命處(욕식장생보명처) 吉星照臨眞十勝(길성조림진십승) 즉 생명을 보전하는 지식을 구하는 곳은 길한 별이 밝게 비추어 임하는 이기신 하나님에 있는 곳이다.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大白金星曉星照(대백금성효성조) 즉 큰 의인은 금성 즉 새벽별이 비치는 자라고 하여 새벽에 가장 밝은 별 금성이라는 뜻의 밝은 희자 별 성자라는 이름으로 정도령이 올 것을 예언하였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

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만국공용의 합동 찬송가 후렴에는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 나시는 주일세"라고 하여 메시아 구세주는 새벽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불경, 격암유록과 일치하는 예언을 해 놓았다.

한국에 출현하는 주인공

불경 증이아함경 49권에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장래지세유불명미륵출현어세) 彌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미시국계명계두왕소지처) 즉 장래 세상에 부처님이 있어 미륵이라 하며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이때의 나라 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예언하여 미륵불이 한국 땅에서 출현한다고 예언하여 놓았다.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예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살아있는 몸에 좌정하여 예로부터 해 돋는 나라로 알려진 한국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진인(眞人) 정도령이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격암유록 出將論에 西湖出生眞人(서호출생진인) 즉 서호에서 진인이 출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서(西)는 오행상 금(金)을 뜻하고 물가 호(湖)자는 물가 포(浦)자를 암시하여 놓은 글로서 서호(西湖)는 김포(金浦)를 숨겨서 예언해 놓은 말로서 진인 정도령이 김포에서 출생한다는 뜻으로 조희성님이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였다.

또한 조희성님이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서 불시영생의 세계를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격암유록 말운론(未運論)에 始終艱野素沙地(시종간야소사지) 즉 "시작도 끝맺음도 간방의 소사땅에서 한다"라고 예언하였고, 조선의 유명한 학자 이울곡 선생의 울곡비(栗谷)는 말과 포(浦)자를 암시하여 놓은 글로서 서호(西湖)는 김포(金浦)를 숨겨서 예언해 놓은 말로서 진인 정도령이 김포에서 출생한다는 뜻으로 조희성님이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희성님은 모든 예언에 적중되는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수봉 장로/본부제단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3>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에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주제의식이다. 나라의 의식이 지꾸 넘어뜨려 자유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되는 나라는 주제의식을 짓이기는 바쁜데 어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는가. 남이아

전북대로 이빨을 쏘시든 말든 내 갈 길이 바쁘고로 상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이긴자가 되기까지 불경이나 고서를 막론하고 심지어 성경도 한 번을 완전히 통독해 본 적이 없다. 이루어져 이긴자가 되고 나니가 성경이고, 불경이고, 고서고 모조리 환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발행인 칼럼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주춤하자 이제 원숭이 두창이 흑시 팬데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원숭이두창이 아프리카 밖의 지역에서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환자가 900명에 근접했다고 한다. 아직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30개 가까운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인 만큼 경계심을 늦추선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뉴시스 기사가 자세히 정리한 기사를 그대로 옮긴다.

직접 접촉으로 감염돼 전파력 코로나보다 덜 심각해

원숭이두창의 인간 감염 사례는 1970년 처음 보고됐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됐다. 하지만 아프리카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19와 달리 원숭이두창은 주로 환자의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감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30개 가까운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이 꼽는 불안 요인 중 하나는 원숭이두창의 긴 잠복기다. 원숭이두창의 잠

복기는 보통 7~14일이지만 길게는 21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숭이두창이 불과 한 달 만에 약 30개국으로 확산된 것은 환자가 별다른 증상 없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려동물 감염시 풍토병 될 수 있어

원숭이두창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원숭이두창은 1958년 두창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실험실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다. 다람쥐와 쥐 등 설치류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환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전파된 뒤 다시 야생동물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가면 풍토병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해외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햄스터나 기니피그와 같은 설치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가 적지 않다. 또 개나 고양이의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감염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다.(뉴시스 2022. 6. 5. 기사에서 발췌)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탐욕에서 연원되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 우한지역 주민들의 보신용 야생동물 접촉에서 비롯되었듯이 아마존 삼림지대 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의 미접촉 서식지의 동물로부터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병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진정한 감염병의 종식은 백신의 개발이 아니라 탐욕의 종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꼭 봐야 할 유튜브 강연

격암유록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양백(兩白)이다. 양백(兩白)은 과연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두 개의 백(白)인데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격암유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백(白)은 죄를 벗고 희게 이루어진 의인을 의미한

다. 따라서 양백은 하도낙서의 중천(中天)의 목운(木運)과 금운(金運) 두 의인을 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백지간에서 십승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도낙서의 중천 개혁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건우곤마라는 64괘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십승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양백의 이치를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양백은 목운과 금운이 합운하여 天地合德兩白聖人(천지합덕양백성인)으로 나오신 지천태괘(地天泰卦)의 주인공 금운(金運)을 말하는데 유튜브를 시청하면 상세히 알 수가 있다.*

진자아름TV https://youtu.be/Hiv2x6EFPy*

